



강길부 국회의원 주최 '한국 건설산업 위기 해소방안' 세미나

SOC 예산 확대 · 지방 건설 경기 회복에 힘써야

현 건설산업의 위기를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제기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업계 임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월 말 강길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아시아 경제신문이 주관한 '한국 건설산업 위기 해소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에디터 백지현 사진 고태진

지난 9월 28일 '한국 건설산업 위기 해소방안'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국회 귀빈식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강길부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영길 아시아 경제신문 대표가 사회 및 종합 강평을 했다.

이날 개막 축사에서 박상돈 열린우리당 건설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건설업이 현재 위기를 맞고 있으며, 건설업체 수가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말에 비해 3.4배 증가하면서 한 회사당 평균 수주액이 1/3 수준으로 격감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도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 수주가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 특히 경쟁력이 약한 지방 중소업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용덕 차관은 건설산업 구조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며, 건설업계는 위기 해소의 활로를 해외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강길부 국회의원은 기조 강연에서 "건설업이 경제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리고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SOC 사업 예산이 줄어들수록 건설업계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7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첨단산업에 건설업이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SOC 예산 확대 및 예산 부족 사업 현장의 대책 마련 절실

'건설산업 위기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건설 경기의 침체는 공공 부문만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 시장에서는 민간 부문의 비중과 영향력이 공공 부문에 비해 큰 편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주택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전반적인 건설 경기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두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별 수주 격차의 심화, SOC 예산 부족에 따른 공사 지연 현장이 증가해 교통 혼잡 구간과 건설업체의 현장 관리 등



강길부 국회의원



곽영길 아시아경제신문 대표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간접비용이 늘어나는 점, 품질 저하에 따른 우려 등을 건설업계의 현안 과제로 꼽았다. 또한 공사 발주 및 입·낙찰 제도의 변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주 격차의 심화가 초래되고, 현행 중소 건설업체 보호 육성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부동산 규제에 의해 지방 주택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점들도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두성규 연구위원은 6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건설업 활성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SOC 예산 확대 및 예산 부족 사업 현장의 대책 마련, 지방 건설 및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반 확보, 공사 발주 및 입·낙찰 제도의 정상화, 건설·생산 체계의 선진화와 구조 조정을 이루는 것 등이다. 덧붙여 두성규 연구위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현장 확산 등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급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건설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적절한 건설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두성규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근 현대건설 상무가 첫 토론자로 나섰다. 이정근 상무는 '위기'라는 말은 항상 써왔던 말이고, 과열이나 침체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라며, 현재 건설 산업의 위기는 정부가 할 일과 민간에서 할 업무를 분담해 공급과 수요에 따라 움직이

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 기반 구축해야

반면 채덕석 한국디벨로퍼협회 부회장은 건설 및 부동산 업계의 현실은 훨씬 심각하다면서, 지금은 SOC 예산의 유지, 부동산 세제의 전면 재검토, 지방 중소 건설업체 육성 기반 구축, 주택 및 개발 사업의 경기 회복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등 총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홍배 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참여정부가 건설 경기보다는 강남 주택 가격에 관심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한 결과 현 상황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간 부문보다 오히려 주공과 토공이 난개발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협력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최중수 건설협회 부회장은 SOC 예산 확대 및 예산 부족 현장의 대책을 마련하고, 조달청 등급제한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중복되는 규제, 특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또한 대기업과 지방 중소 업체들 간의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 건설 산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분양 원가 공개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상돈 열린우리당
건설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근 현대건설 상무



최중수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채덕석 한국디벨로퍼협회 부회장